

‘느티나무학교’ 를 아시나요?

— 병원학교 독서프로그램 운영사례 —



글 | 정 선 화
남평공공도서관 관장
jsun1009@korea.kr

느티나무학교는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 등에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학습결손 및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시키고자 나주 남평중학교에서 국립나주병원 내에 설립한 특수학급이다. 이 학급의 학생들의 장애 유형은 정신분열, 품행장애, 우울증, 과다행동 등이며 또한 정신지체, 자폐성을 동시에 가진 중복장애 학생도 있다. 교육능력은 간단한 문장 읽기는 가능하나 전반적으로 기초 학습 능력이 미흡하며 잦은 재발로 인해 학습 무기력 현상을 보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느티나무학교’, ‘병원학교’ 필자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도 나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알았으니 관심 분야가 아닌 이야기는 그저 흘려 보내버리는 이기적인 습관 때문이라.

국립나주병원에 있는 느티나무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퍼뜩 스치는 생각은 “과연 수업은 진행이 될까? 어떤 아이들일까? 단순한 외상이 아닌 마음 속의 병들을 치료하는 아이들에게... 글썸?” 였다. 그저 지나가는 생각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루 하루 일상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교육장님의 권고도 있었기에 한번은 찾아가 봐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의 짐으로 남기고 있는 중에 어느날 찾아오신 느티나무학교 박자경 선생님! 두 시간 가까이 나눈 이야기들을 이 지면에 다 옮길 수는 없지만, 무심했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이야기가 끝날 즈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신뢰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일단 시작해보자!, 올해 안 되면 내년, 내가 이 도서관에 있는 동안은 계

속해야할 사업으로 시작해 보자! 그러다 보면 나와 눈을 맞춰주는 아이도 있을 것이며, 혹시 또 모르지? 마음을 열어줄지...” 약간은 지나친 포부를 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더니,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또 과연 이 아이들을 보듬어 안아 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학생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부문만 만족하면 위촉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은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 아이들하고 라포¹⁾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생님을 위촉 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였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서관 다문화 강좌를 맡아 주고 계시는 주경숙 선생님께서 필자의 고민을 털어 놓았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찾은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오래도록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의 환희가 느껴졌다. 선생님 개인의 경험을 듣다 보니 “아! 이분이면 되겠다! 괜히 멀리서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가까이 우리가 찾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말이다. 가장 난제였던 선생님을 찾았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하는 두 번째 문제가 남아있었다. 일단 주경숙 선생님과 함께 느티나무학교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느티나무학교’, 처음 마주한 것은 열리지 않는 문이었다. 외부인과의 출입을 통제하는 닫힌 문. 먹먹해지는 마음을 행여 들킬까봐 돌린 시선으로 보이는 창밖은 쇠창살 틈으로도 푸르기만 하였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박자경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 장소를 둘러보고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드디어 계획은 수립이 되었고 이제 개강일을 며칠 남기고 있는 중에 우연히 찾아온 행운,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 신청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집중력이 없는 학생들을 선생님 혼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커서 고민이 많았는데 뜻하지 않게 와준 두 명의 자원봉사 대학생.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고자 하면 이루어지리라.



▲ 느티나무학교 수업

1) 라포(rapport) :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특수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그렇게 시작한 수업! 처음 낯설고 어색해 다가오지 않던 아이들이 어느덧 강사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자원 봉사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자기가 만든 작품을 선물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우리 서로가 변화 되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 먹먹함을 감추기 위해 허공에 맴돌았던 필자의 시선도 제자리를 찾아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병명들은 거창한 의학용어로 낯설고 두렵기까지 했지만, 직접 만나고 부대끼면서 느낀 아이들은 우리 이웃집 아이였다. 나중에 커서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아이, 금방 똑딱 똑딱 만들어 내는 아이, 멀리서도 달려와 온몸으로 안기는 아이, 다른 아이의 짓궂음을 웃으며 참아 주는 아이, 자신의 틱(Tic)장애로 피해를 줄까봐 친구들과 떨어져 멀리 앉는 아이들 모두 말이다.

지난 4개월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다가온 느티나무학교 아이들, 아이들이 바라보는 하늘이 창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 맘으로 만나는 하늘이기를, 그 아픈 마음을 빨리 치유하고 넓고 넓은 세상으로 나오기를, 또다시 다칠 수 있을지라도 조금씩 다져지기를 바란다. 이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속의 시선 눈으로 바라보고 멀게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국립나주병원 느티나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그동안 솔하게 운영하던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가슴으로 와 닿았던 특수학급 아이들과의 수업은 필자가 사서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덧붙여 한 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참여자가 진정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없을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